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9.3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- 두산퓨얼셀, 美 AI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 첫 진출 ('26.9.2, 가스신문)
 - 두산퓨얼셀은 미국 자회사 하이엑시엄과 5,014억원 규모의 인산형 연료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납품한다고 함
 - 하이엑시엄은 연료전지를 미국 AI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며 계약 후 1년 내외 설치, 24시간 연속 운전, 모듈형 증설과 발전열의 냉각 연계가 가능하다고 함
 - 두산퓨얼셀은 익산공장을 기반으로 800MW 이상 설치 실적과 연 275MW 생산능력을 확보했으며 그린수소 인프라 확충 시 수소 연료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함
- 수소에너지, 수소법 체계로 편입...설비 인증·사업화 지원 기반 마련 ('26.9.1, 투데이에너지)
 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인증·사업화 지원 기준을 담은 수소법 시행규칙을 8월 31일 공포해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함
 - 개정 시행규칙은 연료전지·수소가스터빈·수전해·수소추출 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명시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인증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
 - 시험제품 제작·설비투자·교육·홍보 등을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정부 지원 설비의 사후관리와 최대 5년 하자보수 체계를 신설함

○ 산업부, 내년 예산 13.3조 '역대 최대'...자원안보에 3.7조 투입
(‘26.9.1, 에너지신문)

- 산업통상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0.5% 늘어난 13조 2,573 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함
- 전기·수소차 핵심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예산을 2,893억원에서 3,158억원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차 전환 이차보전 신규대출을 500억원에서 2,000억원으로 늘렸다고 함
- 암모니아·수소·전기 추진 무탄소선박과 AI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등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 예산을 1,944억원에서 2,134억원으로 확대함

○ 울산시, 수소전기차 이용 편의성 증대·인프라 확충 (‘26.9.2, 연합뉴스)

- 울산시는 수소충전소 유지관리 예산 12억원을 설비 수선·긴급 복구·예방점검·노후 설비 정비에 투입한다고 함
- 수소 잔량과 공급일정 관리·충전 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현대차에 24시간 운영 충전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
- 북구 농소공영차고지와 동구 남목자동차일반산업단지 등에 민간 충전소 구축을 검토하고 올해 승용 307대·버스 90대·화물 3대 등 400대를 추가 보급함

○ 가스안전공사·완주군 등 수소안전 전문인력 조기 육성
(‘26.9.2, 에너지플랫폼뉴스)

-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완주군청에서 완주군·수소에너지고등학교·한국수소연합·우석대학교와 수소 전문인력 조기 육성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함
- 5개 기관은 수소 안전관리 실무 교육과정과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자격취득 비용·특강·수소 전문기업 현장견학·취업 연계를 지원함
- 협약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무 특화 교육 과정과 현장 안전실습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임

□ 해외

○ [칠레] HNH, 마가야네스 연 135만톤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환경 승인 ('26.9.1, Fuel Cell Works)

- HNH 에너지는 8월 27일 칠레 환경평가위원회에서 환경적격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받음
- 승인은 풍력·수전해·담수화·항만을 묶은 단일 환경영향평가임
- CIP의 30억 유로(약 4조 8천억 원) 펀드가 2022년 출범시켜 오스트리아 에너지·외코윈드가 참여함
- 3GW 수전해로 그린암모니아를 연 135만톤 생산·수출할 계획임
- HNH는 내년 착공을 예상하지만 가동일과 구매계약은 미정이라고 함
- 컨소시엄은 인허가와 기술·상업 조건을 정리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함
- 볼타는 6월 승인됐고 아쿠리오·토탈에너지도 마가야네스에서 인허가 중임
- 이그니스는 2025년 사업을 축소했고 칠레는 국가전략을 대규모 소비·수출 중심으로 개편함



< 사진: 칠레 HNH 그린암모니아, 출처: HNH Energy >

○ [독일] 프랑스와 연결되는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착수
(‘26.9.1, Hydrogen Insight)

- 독일과 프랑스 국경을 연결하는 MosaHYc 수소 파이프라인의 독일 구간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됨
- MosaHYc 프로젝트는 독일의 크레오스 도이칠란트와 프랑스의 나트랑이 공동 개발함
- 프로젝트는 프랑스 북동부와 독일 자를란트주 사이에 총 94km의 수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임
- 이 국경 간 파이프라인은 베르소 에너지의 300MW 규모 CarlHYng 프로젝트를 뒷받침함
- 베르소 에너지는 독일 철강회사 SHS그룹과 CarlHYng 프로젝트 수소 구매계약을 체결함
- 해당 계약은 2029년부터 연간 최소 6,000톤의 수소를 공급하는 내용임
- 크레오스는 프랑스 레이딩겐과 독일 딜링겐 사이 17km 구간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음
- 크레오스는 현재 계획에 따른 건설기간을 약 1년 6개월로 예상한다고 함
- MosaHYc 프로젝트는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70km를 수소 운송용으로 전환함
- 프랑스 측 사업자인 나트랑은 2024년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을 내렸다고 함
- 독일 측 크레오스는 당시 유럽공동이익중요 프로젝트 지원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자체 투자결정을 연기함